

# 김소영 부위원장,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장점검을 위해 금융결제원 방문

-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시스템 관제실 방문  
 - 운영 초기 보안사고, 접속 지연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당부

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30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의 주요한 축인 대출이동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\*하였다.

\* (일시·장소) 2023.5.30.(화) 14:15 / 금융결제원 분당센터

(참석자)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, 김병철 부원장보,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등

이 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으로부터 5월 31일 개시되는 「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」의 준비 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, 금융결제원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다.

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융결제원, 참여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시스템 운영 초기의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또한, 운영 초기 관심이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서버, 트래픽 관리 및 일시적인 지연 현상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, 정부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함께 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상 (02-2100-2992)
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	책임자	국 장	김부곤 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최범전 (02-3145-7129)
	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	책임자	부 장	조형섭 (02-531-1700)
		담당자	팀 장	김근일 (02-531-1720)